

## 초등학교 영어 수업 지도의 이론과 실제

임 병 빈

(공주대학교)

**Im, Byung-Bin. (1997). Teaching English in elementary schools : Teaching aims and techniques in an English classroom.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3, 203~229.**

This paper is to examine a desirable and promising approach to an effective English teaching in elementary schools. Teachers' understanding English curriculum, teaching methodology, language skills-listening and speaking, and their testing of spoken communication is necessary for students' better learning in their English classes. Thus detailed explanations of English curriculum are presented, and background knowledge of major traditional teaching methods as well as recent trends is discussed. Especially,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students' English communicative proficiency, classroom teaching and testing techniques of listening and speaking are also discussed with examples.

### 1. 머리말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에서 영어교육은 그동안 중등학교(중·고)영어교과 교육과 대학의 교양영어 강좌교육으로 연계하여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교육부 고시 제 1995-7호)에 의거하여 1997년 3월 1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영어과 교육과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영어교육 상황을 돌이켜보면 과거 수십년 동안 문법번역식 교수방법(Grammar-translation Method)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여 문어(written language)중심 교육에 치우쳐 읽기기능의 학습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에 대한 반작용은 '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점차 회화기능(듣기와 말하기)위주의 의사소통 능력 숙달을 위한 영어학습 강화로 새로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제 5·6차 중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수업의 실제적인 영어학습 과정을 이끌어가는 상급 학교 진학시험(고교입시와 대학입학수능시험)에서도 의미중심의 영어학습과 듣기 능력을 요구하는 평가체도로 커다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대학의 교양 영어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종래와는 달리 회화교육 위주의 수업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하에서 학교에 따라서는 원어민화자에 의한 회화 수업의 실시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 비정규 강좌로서 각종 영어회화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아울러 사회적 상황에 있어서도 날로 빈번해지는 국제적 교류의 필요성과 제반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어에 의한 의사 소통 능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다. 그리하여 각종의 취직시험 및 승진시험 등에서 영어회화 능력을 평가하고 있음도 이러한 전반적인 영어교육의 새로운 경향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전통적인 영어학습 상황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오늘날의 시점에서 우리의 영어교육이 현재보다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내실있는 교육과정의 설계와 효율적인 영어교육 실행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매우 요청되는 상황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근자에 취해진 조치들로 입시제도에서 영어시험 평가 방식의 합리적인 전환, 수업에서의 구어기능(listening & speaking)강조, 원어민 화자에 의한 학습지도, 각종 시청각 보조물을 이용한 효율적인 수업지도, 현직 영어교사의 해외 어학연수 등은 매우 바람직한 방안들로 간주된다.

더욱이 '9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부터의 연차적인 영어교육 도입은 획기적인 교육정책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우리의 선진화된 영어교육 방향을 촉진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여러 응용언어학자들(Lenneberg, 1967; Scovel, 1988; Geschwind, 1970; Krashen, 1973; Bickerton, 1981; Thompson, 1991 등 다수)의 주장에 의하면, 소위 '언어습득의 결정적 시기 가설(the Critical Period Hypothesis)' 을 내세워 대체적으로 사춘기(puberty, 13~14세)이후에는 언어습득의 어려움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때 초등학교 부터의 영어교육 출발은 우선 긍정적 측면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사회적 현상을 살펴볼 때 실제로 도시와 시골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학습이 사교육적 차원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할 때, 초등학교의 정규 영어교과 교육은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당면한 문제

는 여러가지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를 포함한 좋은 교수 자료의 개발, 훌륭한 교사양성 내지는 효율적인 현직 교사연수, 학습자의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와 적극적 동기부여 등의 요인들을 손꼽을 수 있다. 우선 순위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상황속에서 단계적으로 문제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기존의 중등학교와 대학의 영어교육에 의한 영어 교육과정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현행의 초등학교부터의 영어교육 실시는 '말 못하는 영어 학습자'를 배출했던 지난날의 교육으로부터 '대화 가능한 영어 학습자'를 양성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거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초등학교 영어 수업의 효율성에 보탬을 주고자 영어과 교육과정의 이해, 교수방법, 언어기능 지도방법 및 평가에 관하여 이론과 실제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 II.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의 이해

1995년 11월 1일 교육부가 고시한<교육부 고시 제 1995-7호>에 의거 1997년 3월 1일, 3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키로 한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되는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및 평가에 관하여 영어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올바르게 이해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 1. 성 격

국제화 사회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외국어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영어를 배워야 함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앞의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언어습득 내지는 학습에 적절한 시기로 간주되는 초등학교에서 모국어의 발달과 더불어 영어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언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촉진시켜 보다 효율적인 외국어 학습이 가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언어와 인지(cognition & thought)사이의 상호 의존적인 관련성을 주장하는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 입각해 볼 때, 학습자의 사고력 성장도 도모할 수 있다(Brown, 1994).

초등학교 학습자에게 적절한 감각과 놀이중심의 영어공부, 다양한 수업지도, 시청각 교육매체의 적절한 이용 등을 통하여 반복적이고 단계에 맞는 지도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궁극적으로는 자발적 영어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우선 듣기 기능연습을 강조한 수업활동으로 구성하여 점차적으로 말하기 기능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초보적인 의사 소통 능력을 길러 주는데 그 목표를 둔다. 다만 여기에서의 학습 대상이 초등학교 학생이므로 그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켜 추후 이어지는 고학년 과정(4·5·6학년)과 중학교 교육과정의 영어학습에 순조롭게 발달될 수 있는 기초적인 학습의 바탕이 마련되어야 한다.

## 2. 목 표

언어의 기본적인 네가지 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그리고 쓰기)을 초보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영어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를 유도해주면서 간단한 담화의 이해를 토대로 우선 듣고 이해하기 그리고 말하기의 순서로 출발한 후에 쉬운 글을 읽고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서 표현해 보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 3. 내 용

기존의 중학교 1학년 영어 교육 과정의 교육내용 보다 하위 단계인 초등학교 교육내용인 점에 유의하여 네가지 기본적인 언어기능 영역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아주 쉽고 간단한 말과 글의 이해와 표현을 상술하고 있다. 학생들의 연령과 수준에 적절한 언어 소재의 선택을 통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일으켜 학습에 보탬이 되도록 하며 문자 보다는 음성 언어를 중심으로 지도함으로써 '듣고 말하기'에 의한 구어 의사 소통 능력을 길러준다. 어휘수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까닭에 의사 전달 내용의 표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학습 부담의 측면도 배려해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제시된 어휘 규정을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학년별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3학년 과정

네 가지 언어기능의 도입순서에는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대체적으로는 '듣기-말하기'가 선행된 후에 '읽기-쓰기'의 순서로 제시되는 것이 좋다고 보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아동의 모국어 습득의 경우에서도 우선 귀를 통하여 전달된 청각적인 소리(sound)를 이해하는 훈련을 시작으로 차츰 음

성 언어 자료의 해독(decoding)에 익숙해진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듣고 이해하는 기능이 발전되면서 한편으로는 그 발달 단계에 어울리는 초보적인 언어음 발생으로부터 시작하여 간단한 형태의 담화(discourse)로 진전된다(Slobin 1979).

모국어 습득의 경우와 더불어 우리 인간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글에 의한 의사소통 활동보다는 말에 의한 의사소통 활동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은 누구나 경험적으로 쉽게 간파할 수 있다. 그리하여 초등학교의 영어교육 출발점인 3학년에서의 교육내용은 언어기능면에서 이해와 표현 기능, 즉 듣기와 말하기로 구성함은 합리적인 판단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문자언어 기능의 보조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말에 의한 대화교육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칫 학습자에게 과도한 학습부담을 주어 영어공부에 대한 흥미와 사기를 떨어뜨릴 소지가 있다. 기초적인 영어의 소리를 익힐수 있는 다양한 놀이, 게임 또는 노래를 수업활동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2) 4학년 과정

3학년 과정에서의 마찬가지로 듣기와 말하기 기능 중심으로 영어 학습을 지도한다. 그리고 듣기와 말하기를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문자 인식 단계의 읽기 기능이 뒤따른다. 듣기와 말하기 학습에서 3학년 단계보다는 한 단계 발전하여 느낌, 생각, 자연 등과 관련된 쉽고 간단한 대화를 청취하여 이해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묻고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언어재료의 구성면에서도 3학년에 배운 것을 적용하고 심화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어휘수가 다시 100개 내외로 추가되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의미있는 의사 소통 기능의 폭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 3) 5학년 과정

3, 4학년과 마찬가지로 듣기·말하기 기능을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낱말적 차원의 의미 이해를 위한 읽기 기능 그리고 알파벳을 숙달시켜 간단한 낱말을 표현할 수 있는 쓰기 기능이 도입된다. 5학년 과정에서의 듣기와 말하기 기능은 보다 폭 넓은 의사 소통 능력, 즉 요청, 지시와 명령, 정보 교환, 의견 교환 등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실시한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소재를 선택함과 아울러 영어권의 문화와 풍습을 이해할 수 있는 소재도 포함시키고 3, 4학년의 기본 어휘를 합하여 총 350개 내외의 낱말을 활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기초적인 의사 전달이 융통성 있게 소통될 수 있으며 한 문장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어휘의 수도 9개로 확대된다.

#### 4) 6학년 과정

6학년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3, 4, 5학년 과정의 단계적인 이해와 표현 기능을 총체적으로 숙달시켜 상급학교인 중학교 영어 교육과정과 순조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영어 교육과정을 반복적으로 익히고 정리하는 수업 과정으로 안내한다. 듣기와 말하기 학습에 있어서 듣기는 계획, 경험, 주장 및 문제 해결 등에 관련된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말하기에서는 놀이나 게임을 통하여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대상, 상황, 의도 및 목적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을 병행한다. 읽기에서는 문장적 차원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까지 지도하고 쓰기 기능 연습은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글로 쓸 수 있도록 하며 올바른 문장 부호 사용에 관해서도 학습시킨다. 소재면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과정에서 제시된 개인 생활, 학교 생활, 건강, 취미, 운동, 외국 문화, 사회 생활 등에 관한 전반적인 소재들을 자유롭게 취급하여 발전학습과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도모한다. 6학년 과정에서도 수업시간에 역시 음성언어를 주로 사용하여 말(speech)에 의한 의사 소통 능력 배양을 가장 주요한 학습목표로 삼는다.

#### 4. 방 법

교사 자신이 기획한 <연간 수업지도 계획>에 맞추어 단위 시간과 차시의 학습 목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한다. 학습자의 연령, 수준, 흥미,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저마다 흥미롭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활동으로 진행한다. 적절한 시청각 매체(audio/video tape, OHP, flash card, wall chart, filmstrip, visual presenter 등)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수업을 운영하면서 노래, 놀이 그리고 게임을 상황에 따라 짝 활동, 소집단 활동, 학급 전체 활동으로 실시하여 학습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탄력적인 수업을 계획·실시한다. 반복적인 교과서 내용의 학습 과제와 자신의 창의적인 의미 전달 과제를 균형있게 배합하여 의사 소통 능력을 배양시킨다. 쉬운 것에서부터 점차 어려운 것으로, 개인적인 것에서 점차 사회적인 것으로 확대 심화할 수 있는 난이도 수준과 학습 내용 수준을 고려한 나선형 교수학습 방법을 추구한다. (Brown 1994, P. vii의 'spiraling approach' 참조).

수업 활동 중에 학생들이 범하는 실수(mistake) 또는 오류(error)에 관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수정하는 것을 삼가며 가급적이면 좀 부족한 응답에 대해서도 격려 내지는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며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주는 수업으로 유도해 준다.

## 5. 평 가

각 학년에서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각의 언어 기능별로 평가한다. 학생들의 수준과 학습 부담을 고려하여 학습한 내용을 듣고 이해하는 기능, 읽고 이해하는 기능, 말하기와 쓰기의 표현기능, 그리고 의사 소통적 기능과 유창성(fluency)을 평가하되 타당성, 신뢰성, 실용성을 갖춘 평가가 되어야 한다.

평가 방법에 있어서 분리식 평가(discrete-point test)와 통합적 평가(integrative test)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전자에 해당하는 발음, 어휘, 문법 등의 숙련도 측정과 아울러 후자에 속하는 언어의 유창성 및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 측정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III. 교수방법

초등학교 영어수업에 관련되는 주요 교수방법을 개관하며 효율적인 교수방법의 모색과 아울러 교수방법과 교사의 태도에 관하여 논의한다.

### 1. 주요 교수방법의 개관

#### 1) 직접식 교수법(Direct Method)

직접식 교수법은 모국어를 통한 번역이나 설명을 하지 않고 외국어와 직접 접촉함으로써 외국어로 생각하며(thinking in the foreign language) 외국어의 사용만이 허용되고, 학생들로 하여금 대부분의 활동에 참여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어린 아이가 말을 배울 때 쓰는 자연스런 과정과 같다하여 자연식 교수법(Natural Method)으로 불리기도 한다. 직접식 교수법은 1930년대에 성행하여 그 후 부분적인 수정이 가해져 왔다. Wilhelm Viator, Paul Passy, Otto Jespersen, M. D. Berlitz, Michael West, H. E. Palmer, Lawrence Faucett 등이 이 방법의 옹호자들이다.

위에 열거한 직접식 교수법 주장자 중 Viator가 주장하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 ① 구어(Spoken language)가 외국어 교수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어린 아이들이 귀로 듣고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성인의 경우도 귀로 들어서 외국어를 배워야 한다.

- ② 외국어 교수는 음성학에 관한 확실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정확한 발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정확한 발음을 터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외국어 사용국에 체류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할 필요가 있다.
- ③ 언어란 고립된 것이 아니고 낱말 군(word group)과 어떤 의미를 지닌 문장으로 구성되었으므로 맹목적인 암기는 지양해야 한다.
- ④ 문법은 연역적이 아닌 귀납적 방법에 의하여 습득시키고 문법상의 패러다임(paradigm)등은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 ⑤ 번역을 하는 경우에 외국어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상의 Vietor의 직접식 교수법 내용에 대한 요약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방법은 귀와 입을 통하여 듣기와 말하기의 연습을 충분히 하고 의미를 파악한 다음 많은 유사 문장을 만들어 내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특히 모국어의 사용을 피하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도 외국어를 사용해야 하고 구어에 중점을 두게 된다. 그 까닭은 이 교수법에서는 모국어의 매개 없이 직접 외국어로 생각하고 자연스런 외국어를 사용하여 의사 소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 2) 청화식 교수법(Audio-lingual Method)

20세기 초에 이르러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혁신적인 주장을 펴려던 직접식 교수법이 널리 일반화 되지 못한 채, 여전히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청화식 교수법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1940년대 이후의 외국어 교육에 새로운 전환점의 기틀을 마련하여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세계 각처에서 널리 유포되어진 방법이다.

이 방법은 구조주의 언어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이어 받았다. 따라서 언어와 언어 습득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진전되고,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문법번역식 교수법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개혁의 필요성에 의해 이 청화식 교수법이 새롭게 과학적인 이론으로 각광을 받아 급격히 보급되었다.

William Moulton(1961)은 이 청화식 교수법에 의한 교재 작성이나 교실 수업의 기술을 응용할 때 기본이 되는 5개 항목의 교수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언어는 문자가 아니라 말이다.(Language is speech, not writing.)
- ② 언어는 일련의 습관이다.(A language is a set of habits.)
- ③ 언어에 관해서가 아니라 언어를 가르쳐라.(Teach the language, not about the language.)



- ④ 언어란 본국인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A language is what its native speakers say, not what someone thinks they ought to say.)
- ⑤ 언어는 서로 다르다. (Languages are different.)

이 방법에서는 실제 교실 수업시간에 언어의 4기능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순서로 지도할 것을 제안한다. 교재는 구어중심으로 편집되며, 초기에는 '듣기와 말하기'를 주로 지도하고 '읽기와 쓰기'는 이를 돕는 역할을 할 정도로만 지도한다. 상급 단계로 올라갈수록 읽기와 쓰기에 중점을 두지만 이 때에도 듣기와 말하기는 소홀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법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음운조직의 습득을 구두연습을 통하여 음의 청취식별 및 발음을 훈련시킨다.
- ② 청취이해와 구두표현에 필요한 문형을 연습하여 습관을 형성시킨다.
- ③ 어휘 중심의 교재에서 탈피하여 음성과 구조 중심으로 음성체계 또는 문법상의 대립적 특징(contrastive features)을 중요시한다.
- ④ 문법을 분석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유추(analogy)에 의해서 문형을 반복하여 동일 요소를 인식시킨다.
- ⑤ 언어 습관의 형성이 필요하므로 구두연습을 충분히 시킨다.
- ⑥ 어휘 수의 증가를 통제하여 기본적인 어휘를 사용한 기초적인 주요 구문을 연습시킨다.

### 3) 침묵식 방법(The Silent Way)

Gattegno(1972)에 의해서 고안된 이 방법에서는 교사는 거의 전적으로 침묵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교수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직접적으로 학생에게 학습의 주도권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부과한다. 언어의 모든 항목(음, 문장 또는 그 이상의 큰 단위)은 학생의 내재적인 인지탐색 과정을 통하여 학습된다. 오류에 대한 수정은 무책임하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로부터 얻어지는 비언어적 단서(non-verbal clues) 또는 동료 학생들의 발화를 청취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오류를 발견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술은 파지(retention)에 큰 도움을 주는 심층적인 인지과정을 필요로 한다. 교사의 침묵은 미숙한 초보자인 학생과 숙련된 교사의 커다란 심리적 간격을 제거해 주고, 협조적인 상황에서 함께 수업에 참여한다는 느낌을 불러 일으켜 준다.

다음은 이 교수방법의 특징을 열거한 것이다.

- ① 교실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목표어이다.

- ② 색깔 있는 막대(rod)와 도표(charts)를 활용한다.
- ③ 교사는 언어요소(단어 또는 문장)를 한 번만 언급한다.
- ④ 교사가 한 번 말해준 다음 학생이 마음속으로 반복 연습할 수 있는 시간(pause)을 준다.
- ⑤ 정정을 필요로 할 경우 다른 학생으로 하여금 한 번 더 반복시킨다(peer correction).
- ⑥ 교사의 몸짓에 따라 학생들이 언어로 표현을 하며 발음과 문법적인 오류까지도 동작으로 나타내어 이해시킨다.

이와 같은 교수방법은 많은 논란의 여지를 지니고 있으나 초기에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집중시키며 학생중심의 수업활동이 전개되고 교사에 의한 교수활동이 위주가 아닌 학생중심의 학습활동에 의하여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색을 지니고 있다.

#### 4) 집단 언어 학습법(Community Language Learning)

약칭 CLL(Community Language Learning)로 불리는 이 교수방법은 Curran(1972)에 의하여 주장된 것으로 상담심리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교사가 능동적으로 교수시키지 않고, 카운셀러의 입장을 취하여 학생('client'라고 부름)이 목표어로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이 방법은 전적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이다. 왜냐하면 발화를 시도하는 책임이 학습자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의사전달 내용을 결코 통제하지 않는다. 발화는 교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 구성원중의 타 학습자에게 방향을 맞추게 된다.

다음은 이 CLL교수방법의 특징이다.

- ① 정서 조정(affect modification)을 통하여 공동목표 성취를 위한 학습자간의 긴밀한 유대감을 조성시킨다.
- ② 필요한 경우 모국어 사용을 허락하여 불안감과 경쟁심을 억제한다.
- ③ 점진적인 다양한 학습단계 과정을 통하여 새롭고 독자적인 목표언어지향의 개성(target language personality)을 계발한다.
- ④ 수업 시간에 학습자가 자신의 발화를 교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형태로 습득한 후 녹음을 하여 이용한다.
- ⑤ 학습자 자신의 사고(ideas)가 자신의 목소리로 표현되어 녹음된다는 사실은 파지에 인지적으로 도움을 주는 개인의 자아(personal ego)형성에 보탬이 된다.

이 CLL 방법의 장점으로는 학생들이 교사와 관계없이 하고 싶은 말을 안정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직접 육성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자신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 한편, 단점으로는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실질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며 교사에게도 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동시에 학습자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내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심리학적·언어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분석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 5) 전신 반응법(Total Physical Response)

Asher(1977)가 착안해낸 전신반응법은 Postovsky(1974)의 청취 우선 방법과 함께 언어학습에서 청취력 배양을 가장 먼저 배우게 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의사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교수법들이 네 가지 기능의 고른 배양을 위해 조기부터 말하기를 도입하는 데 비해 이 방법에서는 초기에는 듣기만을 훈련시키고 구두 연습을 피하며 듣기 능력이 어느 정도 길러진 후에는 말하기를 훈련시킴으로써 외국어를 더욱 빨리 습득시킬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교사가 말하는 것을 열심히 듣고 교사가 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도록 부탁하는 방법이다. 즉, 교사는 학생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영어로 명령할 것이며 그 명령대로 교사가 행동하는 것을 보며 똑같이 행동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몇 명의 지원자를 찾는다. 교사는 이 학생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다른 학생들을 향해 한 줄로 놓여진 의자에 앉게 한다. 그리고 영어로 "Stand up." 하면서 교사가 의자에서 일어서고, 앞에 나와 앉아 있는 학생들에게 일어서도록 손짓을 한다. 그에 따라 학생들은 일어난다.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되면 다음의 새로운 말을 하며 동작의 시범을 보인다. 이렇게 몇 가지 동작을 연결하여 행동을 하도록 명령을 연속한 후 자리에 앉도록 한다.

다음에는 교사가 명령만 하고 동작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중 한 사람에게만 명령을 하고 행동을 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에 교실에서 지켜보고 있는 나머지 학생들에게 명령에 따라 동작을 하게 한다.

이 같은 전신 반응법은 외국어 학습시 학습자가 느끼는 부담감과 불안감을 줄이고 유창성을 획득하기 까지 흥미를 지속시켜 학습자의 성취감을 높이고 격려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 2. 효율적인 교수방법

지금까지 전통적인 교수방법과 새로운 교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교수방법은 제각기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상황적 여건에 따라서 효율적인 외국어 학습에 타당한 방법이 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기리라고 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어느 특정 교수방법이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규정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교수학습 이론도 다양한 면모를 보여왔으며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언어관, 언어학 이론, 언어습득 이론 및 심리학 등의 영향을 받아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즉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중 어느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교수방법의 모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교수방법은 그 이전의 방법을 파기하고 새로운 틀 안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원리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또 다른 교수방법으로 제안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어떠한 교수방법도 만병통치약처럼 효과를 보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외국어 학습에는 너무도 많은 학습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수한 학습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줄 특정한 교수방법을 찾기란 불가능하고 어리석은 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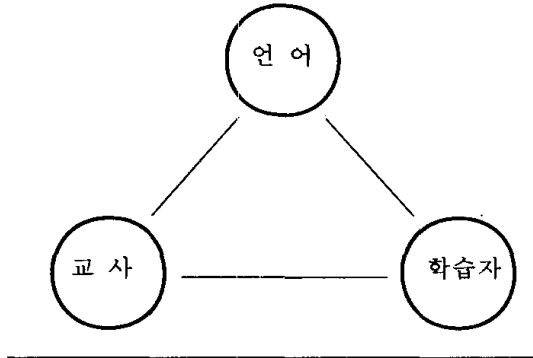
오늘날의 사회는 옛날과는 달리 매우 복잡하고 신속하게 변화하는 매우 유동적인 사회상황이다. 그 많은 학습요인 중에 얼핏 생각만 하여보아도, 배우는 학생, 가르치는 교사, 교육내용이 담겨진 교재, 사회적인 상황, 외국어 교육목표,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인 뒷받침 등이 있으며 이들 하나 하나의 요인에도 내적으로 다양한 변인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외국어 교육을 담당한 교사는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어느 하나의 교수방법을 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 자신이 경험과 이론적 지식에 바탕을 둔 현명한 판단에서 자기 나름의 절충적인 교수방법을 모색하여 외국어 학습지도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Larsen-Freeman(1987)은 지난 25년 동안 범 세계적인 EFL 교육상황에서 취급되어온 교수방법론적 문제를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①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
- ②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
- ③ 교수학습 대상의 언어

이상의 세가지 요소를 도식화 하면 다음의 [그림1]과 같이 된다.

[그림1] 교수방법 선정에 필요한 3요소



Larsen-Freeman은 위와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기존 교수방법의 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장하면서, 전통적인 교수방법과 최근의 새로운 교수방법을 총 망라하여 위에서 언급한 3요소를 고려한 유동적이고 탄력있는 절충식 교수방법(principled eclecticism)의 채택이 오늘날의 EFL 교육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교수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효과적인 교수방법론에 관한 Larsen-Freeman의 입장은 Brown(1994)의 경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Brown의 주장에 의하면, 교사는 편협한 아집이나 독선을 버리고 끊임없는 연구자로서 기존의 이론적 및 실험적 연구를 공부해야 하며 동시에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 상황에 적합한 것인가를 알아 보기 위해서 실제로 적용해보는 절차를 거쳐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실험자적인 자세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방법은 그동안 문법번역식 교수방법을 기초로한 '통일성(unity)'에서 신·구 교수방법을 적절하게 변용시킬 '다양성(diversity)'의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양성'의 방향은 위의 Brown이나 Larsen-Freeman의 주장에서 논의된 것처럼 여러 가지 교수방법을 이론과 실제의 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한 상황의 교사, 학습자 및 학습대상 언어에 최적의 교수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융통성 있고 선택적인 복합체로서의 통일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아진다.

### 3. 교수법과 교사의 ...

1960년대 이후 그동안 EFL 교수방법에 관하여 언어이론, 언어 학습이론 및 교육론(pedagogy)의 견지에서 많은 연구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EFL 교육상황은 10수년전이나 지금이나 대체적으로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국제적으로 빈번한 의사소통적 접촉의 필요성에 의하여 우선 회화교육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현행 중등학교 외국어 교육과정 목표로 명기되어 있지만 그 실효성은 탐탁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어교사는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론적 연구의 지식을 쌓고 그 이론적 지식을 실제 영어수업에 반영시켜 보는 부단한 실험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교수방법과 앞으로의 교수방법 사이에 연속적인 피이드백(feedback)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 자신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입각한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좀더 나은 영어교육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영어 교육목표의 합리적인 설정과 그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상급학교 진학시험으로서의 영어 입시문제가 현실적인 영어교육목표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어느 하나의 교수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가르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교수방법의 장점을 살려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자유로우며 유동적인 교수방법을 교사 자신이 스스로 개발해서 수업에 활용해야 한다.

넷째, 영어교사의 개인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집단연수를 통하여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실제 자신의 영어수업 지도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보다 나은 영어교육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사가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에서 기획된 체계적인 교수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 과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교수 자료의 적절성,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활동 및 학습 성취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교수 ↔ 평가'간의 유기적인 피이드백이 항상 조성되어야 한다.

## IV. 언어기능 지도 방법 및 평가

초등학교 영어교육에서는 주로 구어기능(듣기·말하기)의 숙달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배양이 주된 학습목표이므로 여기에서는 언어의 4기능중 듣기와 말하기 기능의 지도방법과 어휘지도의 실제적 측면을 논의함과 더불어 이들 기능에 관한 평가의 예시적인 출제 문항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1. 언어기능 지도 방법

#### 1) '듣기' 지도

영어를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미에 영향을 주는 소리의 차이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소리 형태에 의해서 표현된 낱말과 문장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문장과 문장 단위 발화의 결합체인 전체적인 담화의 내용을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문단계의 듣기 지도는 영어의 음소들을 들어 식별하는 능력과 낱말, 문장 그리고 문장의 결합체인 기초적인 담화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

#### (1) 음소 식별

##### A. 분절 음소(segmental phonemes)

영어의 개별 자음과 모음들을 분절 음소라고 부른다. 이를 지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최소 대립쌍 연습(minimal pair drill)으로, 다음과 같은 한쌍의 단어를 연습시킨다.

sin[sin]	thin[θin]
bed[bed]	bad[bæd]

즉, 이런 쌍의 단어는 그 단어를 구성하는 여러 소리 가운데 동일한 위치에서 오는 소리 중 하나만이 달라지고, 이 소리가 다름으로써 서로 의미가 달라진다.

따라서 이러한 최소 대립쌍을 통한 발음 연습은 효과적인 듣기 연습이다. 구체적인 연습은 다음과 같이 지도할 수 있다.

- ① 적절한 대립쌍을 선정하여 하나의 대립 쌍을 2~3회 반복하여 들려준다.
- ② 학습자로 하여금 그가 들은 소리가 동일한 소리인지(same) 아닌지(different)를 식별토록 한다.(동일한 소리로 판단한 경우에는 손가락 하나를 들고, 상이한 소리로 판단한 경우에는 두 손가락을 들어서 답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개별 또는 전체 학생의 음식별 연습이 가능해진다.)

(예) Teacher	Class Student(s)
fine-pine	두 손가락을 든다.
grass-grass	한 손가락을 든다.
grass-glass	두 손가락을 든다.

### B. 초분절 음소(suprasegmentals)

분절 음소의 지도를 먼저하고 다음으로 초분절 음소의 지도가 이어진다. 여기에는 강세(word stress, phrase stress, sentence stress), 억양(rising/falling intonation) 그리고 음의 높낮이(pitch)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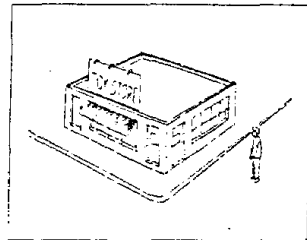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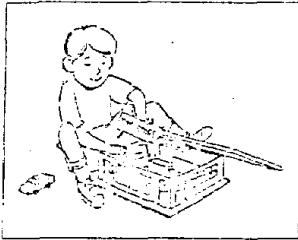
이를 위해 모방 연습만으로는 어려우며 가능하다면 교사가 간단한 음성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와줄 필요가 있다.

#### ① 어구 강세

예를 들어 장난감으로서의 가게를 그린 그림(a)과 실제로 장난감을 파는 가게의 그림(b)을 준비하고, 해당하는 그림을 짚어가며 아래 말을 반복하여 들려준다.

a. It's a t<sup>o</sup>y st<sup>o</sup>re.

b. It's t<sup>o</sup>y st<sup>o</sup>re.



#### ② 문장 강세와 억양

다음과 같은 말들을 되풀이 해서 들려준다.

a. What did you buy?

b. Who bought a bicycle?

I bought a bi cycle.

I bought a bicycle.



c. Good morn ing.

How are you, Mi ke?

I'm fi ne.

## (2) 문장/담화 이해

쉽고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하는 연습을 실시한다.

- ① 한 문장을 들려 주면서 그 뜻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몇 개의 묘사된 그림을 보여주고 그 중에서 관련 그림을 고르도록 한다.
- ② 지시문 등을 들려주면서 그 내용을 몸동작이나 그림으로 나타내도록 한다.  
(예)

Open your book.

Bring me the apple.

Stand outside the circle.

Draw your shoes.

Next draw a dog.

- ③ 일련의 그림을 보면서 대화를 2, 3회 듣는다.
- ④ 대화내용과 관계된 몇가지 쉬운 질문을 주고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대화를 다시 듣게한다.
- ⑤ 질문에 대답하게 한다.

## 2. '말하기' 지도

'말하기' 학습의 목표는 원어민화자와 목표어(target language) 말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영·미인들과 같이 말하기 능력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의 입문 과정에서는 표현이나 발음이 다소 부정확하고 문법적인 실수나 과오를 범할지라도 유창성(flucy) 면에서 의사 소통이 가능하다면 소기의 '말하기' 지도 목표가 상당히 달성된 것으로 간주함이 좋다.

‘말하기’ 지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습 지도에 필요한 어느 정도 교사 자신의 영어구사 능력 수준(near native/acceptable level)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영어 지도 교사는 부단한 연수를 통하여 최소한의 요구되는 수준에 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능력을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발음 연습, 구문 연습 그리고 대화 연습을 실시한다.

### (1) 발음연습

#### A. 개별음

하나의 소리(개별 분절음) 즉 단음 지도는 위의 ‘듣기’ 지도에서 활용한 최소 대립쌍 연습을 통하여 학생들이 구두로 발음해 볼 수 있는 충분한 훈련을 쌓는다. 또한 필요에 따라 녹음자료(audio/video tapes)를 이용하여 원어민 화자의 발음을 모방하도록 연습하면서 관련된 조음음성학(articulatory phonetics)에서 기술되고 있는 조음기관의 조음점과 조음방법(입술의 모양, 혀의 위치 등)을 곁들여 설명함으로써 학습자의 이해를 촉진시킨다.

#### B. 단어의 발음

우리말과 영어의 발음상에 차이를 빚어내는 주요 요소들을 중심으로 지도한다. 예를 들면 음운 배열법(phonotactics)상의 차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학습자가 영어의 strange[streɪndʒ]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우리말의 음운배열 구조식으로 [sʌtʌreɪndʒ] 또는 [sətəreɪndʒ] 등으로 발음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 하나의 유의할 점은 약모음[ə](schwa)의 발음이다. 약모음은 강세가 오지 않는 음절에서의 소리의 변화로써, 학생들이 beautiful[bj: tʌful], problem [prəbləm]에서의 [ə] 발음을 각각 [i]와 [e]로 발음하는 잘못된 경향을 보일 수 있다.

#### C. 구와 문장의 발음

구와 문장의 발음 지도에 있어서는 의미상 밀접한 관계를 갖는 단어군(word group)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발음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Would you write it?’은 ‘Would you’와 ‘write it’을 묶어서 발음하도록 한다. 또한 낱말과 낱말이 연결될 때 음운상의 탈락현상이 나타나 동일한 자음이 연속될 때 하나의 소리로만 발음된다. 즉, a good deal은 [ə gud di:l]이 아니라 [əgudi:l]로 발음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음절박자 언어(syllable-

timed language)인 우리말과는 달리 영어는 강세박자 언어(stress-timed language)이므로 아래의 (예)에서 처럼 문장의 길이가 달라지더라도 각 문장을 말하는 시간상의 소요시간은 거의 비슷하다.

(예)

- a) Dogs eat bread.
- b) The dogs eat bread.
- c) The dogs will eat bread.
- d) The dogs will eat the bread.

## (2) 구문 연습

### A. 모방-반복 연습

교사는 학생이 새로 배운 문장의 구조를 이미 학습한 어휘를 사용하여 제시한다. 이 문장을 교사가 모범 발화(model utterance)로써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학생이 따라 말하게 한다. 억양과 문장세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때까지 반복 연습시킨다. 이때 보조자료로 해당 예문이 쓰여있는 차트나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카드를 보여줌으로써 학생의 의미 이해를 돕는다.(OHP 사용도 가능하다.) 그런 다음 해당 문장의 뜻을 말해주고 문장의 문법적 구조에 대하여 설명해준다.

### B. 대체 연습(substitution drill)

먼저 기본 문형을 익힌 다음 그 문장을 구성하는 낱말들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이미 배운 구문을 통하여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장구조 연습방법이다.

(예)

- T : Where's the bus stop?
- S : Where's the bus stop?
- T : (Cue) school
- S : Where's the school?
- T : (Cue) blackboard?
- S : Where's the blackboard?

이때 단서(cue)를 그림이나 실물로 대체하여 시각적 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

### 3. 대화 연습(Dialogue/Conversation Drill)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하여 가상적 상황이나 실제적인 상황에서 관련된 내용을 서로 말해보도록 한다. 우선 교과서에서 제시된 대화 내용을 충분히 연습한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짝활동, 집단활동 등을 활용하여 낱말 및 문장 차원에서 발음, 강세, 억양 등을 자연스럽게 익힌 후에 자신의 의사 전달 의도를 표현해보는 연습을 실시한다.

#### A. 따라서 말하기(retelling)

교사가 말한 담화를 듣고 따라서 그대로 말해보는 연습이다. 들은 내용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교사의 말을 모방한다. 이때 관련 대화를 그림이나 글로 보여 줄 수 있다.

#### B. 구두 보고(oral report)

교과서에서 배운 대화 내용의 상황이 묘사된 그림카드나 패도를 보고 학생들이 그와 관련된 내용을 구두로 말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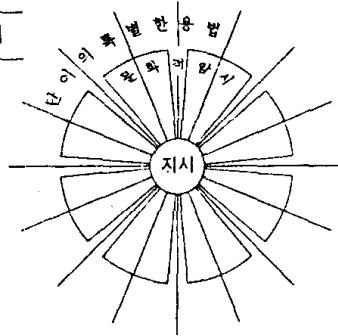
#### C. 역할극(role play)

상점, 학교 운동장, 친구네 집 등의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을 학생들이 역할을 맡아 이야기를 나누게 한다.

### 3. '어휘' 지도

어휘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바르게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영어의 어휘를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어휘의 의미와 사용되어지는 영역에 따라서 어휘의 종류가 구분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어휘 의미에 있어서 '지식', '문화적 암시', '단어의 구체적 용법' 등의 관계는 [그림2] (Hammerly 1982)에 잘 나타나 있다. 지시적 의미가 그림의 중앙에 위치하는데, 이것이 의미의 기본을 형성하여 다른 요소들과 관련된다. 지시적 의미 주변에 문화적 암시 내용이 위치하여 지시 내용에 관련된 문화적 총체를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단어의 독특한 용법이 지시 내용과 문화적 암시 내용에 연결되어 확장된다.

[그림2] 어휘의 의미 관계



다음은 어휘 교육의 유의점이다.

- ① 어휘는 항상 정상적인 대화속에서 가르친다.
- ② 새 낱말은 이미 알고 있는 구문속에서 가르친다.
- ③ 가능한 한 같은 종류나 성격의 단어는 함께 연상시켜 가르친다.
- ④ 먼저 어휘의 뜻을 여러 형식으로 알리고 극대화하거나 그림을 보여주고, 바꿔 말하기(paraphrase), 대치, 전환 및 질의 응답 대화를 통하여 가르친다.
- ⑤ 문맥(context)속에서 낱말을 배운다.

*late* : The school begins at 9:00.

Min-ho comes at 9:20. He is *late*.

- ⑥ 반의어, 동의어 제시에 의해서 어휘 확장을 도모한다.  
반의어 : rich/poor, good/bad  
동의어 : understand/make out
- ⑦ 다양한 어휘게임을 통하여 어휘를 배운다. 예를 들면 제한시간 (2분 정도)을 주고 관찰한 사물들 (연필, 지우개, 모자, 노트북 등)의 명칭을 가능한 많이 말해보도록 한다.

#### 4. 언어 기능별 평가 문항의 실제

##### (1) 듣기 평가 유형

###### ■ Sample Item Type 1

다음의 두 낱말을 듣고 발음이 같으면 A, 다르면 B로 표시하시오.

Pull, Pool

###### ■ Sample Item Type 2

다음의 세 낱말을 듣고 다르게 발음되는 것 하나를 고르시오.

(A) ship (B) sheep (C) ship

■ Sample Item Type 3

다음의 낱말들을 잘 듣고 아래 그림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 (A) meat      (B) bird      (C) fish



■ Sample Item Type 4

다음의 문장들을 듣고 각 문장의 주어가 단수이면 S, 복수이면 P로 표시하십시오.

1. She is coming now.
2. We are playing baseball.

■ Sample Item Typ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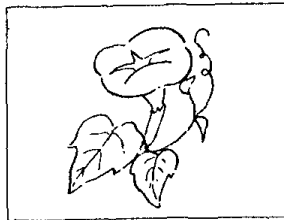
다음의 말을 잘 듣고 지시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1. Stand up.
2. Touch your nose.
3. Pick up the pencil.
4. Open the window.

■ Sample Item Type 6

다음 그림을 보고 들은 말이 그림과 일치하면 T, 다르면 F로 표시하십시오.

This is a flower.



■ Sample Item Type 7

다음 대화가 사용된 장소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A : How much is this cap?  
 B : Seven dollars.

A : That's OK. I'll take it.

(A) in a restaurant (B) in a school (C) in a store

■ Sample Item Type 8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When do you get up?

(A) At seven. (B) In the classroom. (C) With my mom.

■ Sample Item Type 9

다음의 내용을 잘 듣고 사실과 같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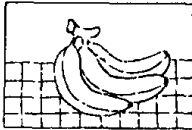
1. The sun rises in the morning.
2. It is cold in winter.

■ Sample Item Typ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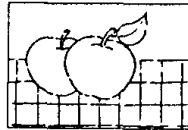
다음의 내용을 잘 듣고 같은 뜻의 그림을 고르시오.

There are two apples on the table.

(A)



(B)



(2) 말하기 평가 유형

■ Sample Item Typ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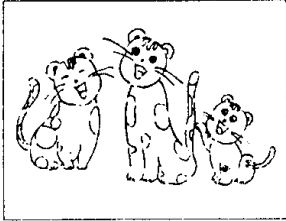
버스나 열차의 행선지별 시간표를 제시하고 출발 시간에 관해서 묻고 답한다.

What time does the bus start for Seoul?

열차 시간표		
행선지	출발 시간	도착 시간
서울	9 : 00	11 : 00
광주	9 : 30	11 : 30
부산	10 : 00	14 :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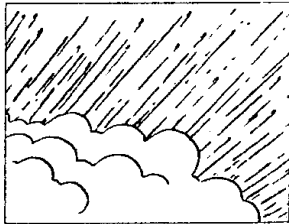
▣ Sample Item Type 2

그림 카드를 보면서 해당되는 숫자 또는 사물의 이름을 말해 본다.  
seven, three, cat, tiger, flower, etc.



▣ Sample Item Type 3

상황이 묘사된 그림을 보고 묻는 말에 답을 한다.



T : How is the weather?

S : It is raining.

▣ Sample Item Type 4

교실에 있는 물건이나 준비된 물건들을 가리키면서 물건의 이름이나 색깔을 묻는다.

T : What is this? (*pointing to a desk*)

S : That's a desk.

T : What color is this apple? (*holding up a red apple*)

S : Red.

▣ Sample Item Type 5

교사의 묻는 말에서 나오는 우리말 단어를 영어로 말해보도록 한다.

T : What do you say '지우개' in English?

S : Eraser.



#### ■ Sample Item Type 6

교사의 지시에 따라 말해 보게 한다.

T : Tell Dong-min to go home.

S : Go home, Dong-min.

#### ■ Sample Item Type 7

교사와 학생이 현재 처해 있는 실제 상황 속에서 묻고 답한다.

T : Can you play the piano?

S : No, I can't.

#### ■ Sample Item Type 8

개인적인 사항에 관하여 묻고 답한다.

How old are you?

What's your hobby?

Where is your brother?

Do you like music?

## V. 맺음말

초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영어교과 교육에 관한 찬반 양론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체계적인 초등영어 교육 그리고 내실있는 영어학습과 관련한 문제점은 이 제도의 예고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이미 초등학교 영어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으로의 과제는 결국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영어교육이 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모아져야 하겠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좋은 교과서의 개발을 비롯한 양질의 교수학습 자료개발, 유능한 교사 양성, 교수방법의 개선, 열린학습 교실 상황 만들기, 현직 연수의 효율성 제고 등이 능동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영어교육 틀속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밝혀보았으며, 학생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의 영어 교육과정에 관한 이해를 촉구하여 보았다. 아울러 영어 수업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교수방법의 이론과 실제적 차원에서 수업기술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구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듣기·말하기 지도

방법과 평가문항 출제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였다. 그러므로 영어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학습자의 수준, 학습의욕, 연령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교사 자신의 영어 구사능력, 충분한 수업준비, 효과적인 멀티미디어의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반 학습요인들을 보완·조정함으로써 보다 성공적인 영어학습이 성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 (1995).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서울 :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Asher, J. (1977). *Learning Another Language through Actions: The Complete Teacher's Guidebook*. Los Gatos, CA: Sky Oaks Productions.
- Bickerton, D. (1981). *Roots of Language*. Ann Arbor, MI: Karoma Publishers.
- Brown, H. D. (1994).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Curran, C. A. (1972). *Counseling-learning: A Whole Person Model for Education*. NY: Grune & Stratton.
- Gattegno, C. (1972). *Teaching Foreign Language in Schools: The Silent Way* (2nd Ed.). NY: Educational Solutions.
- Geschwind, N. (1970). The Organization of Language and the Brain. *Science*, 170, 940-944.
- Hammerly, H. M. (1982). *Synthesis in Language Teaching: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s*. Blaine, WA: Second Language Publications.
- Krashen, S. (1973). Lateralization, Language Learning, and the Critical Period: Some new evidence. *Language Learning*, 23, 63-74.
- Larsen-Freeman, D. (1987). Twenty-five Years of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English Teaching Forum*, 25(4), 2-10.
- Lenneberg, E. H. (1967). *The Biological Foundations of Language*. NY: John Wiley & Sons.

- Moulton, W. G. (1961). Linguistics and language teaching in the United States, 1940-1960. In: Mohrmann, A. Sommerfelt, & J. Whatmough (Eds.). *Trends in European and American Linguistics, 1930-1960*. Utrecht: Spectrum Publishers.
- Postovsky, V. A. (1974). The effectiveness of delay in oral practice at the beginning of second language learning. *Modern Language Journal*, 58, 5-6.
- Scovel, T. (1988). *A time to speak: A psycholinguistic inquiry into the critical period for human speech*. NY: Newbury House Publishers.
- Slobin, D. I. (1979). *Psycholinguistics* (2nd Ed.). Glenview, IL: Scott, Foresman & Company.
- Thompson, I. (1991). Foreign accents revisited: The English pronunciation of Russian immigrants. *Language Learning*, 41, 177-204.